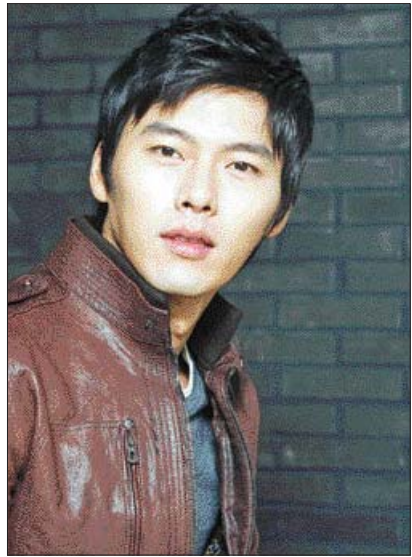


영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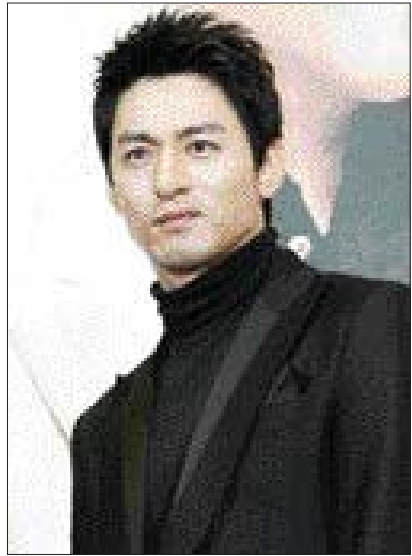
스크린·브라운관 '포연 속으로'



<장동건>



<현빈>



<주진모>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전쟁영화 제작이 붐을 이루고 있다. 브라운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는 23일 첫방송을 시작하는 소지섭·김하늘 주연의 MBC 드라마 '로드 넘버원'과 최수종이 주연을 맡은 KBS 드라마 '전우'(19일 방영 시작) 등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거 쏟아진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작품은 오는 16일 개봉을 앞둔 영화 '포화 속으로'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만든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포화 속으로'는 113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전쟁 블록버스터.

6·25 전쟁 당시 경북 포항에서 벌어졌던 남한 학도병 부대와 북한 정예군의 치열했던 전투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권상우·차승원·김승우와 박병의 탐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시사화를 통해 작품이 공개되면서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센 영화이기도 하다.

'친구' '태풍'의 광경택 감독은 '아름다운 우리'를 제작한다. 국내 최초 3D 해양 전투 블록버스터를 표방한 '아름다운 우리'는 지난 200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 2차 연평해전을 소재로 하고 있다.

현재 주진모·현빈·이정진이 캐스팅됐으며, 올해 칸 마켓에서 영국에 선관매되기도 했다.

'제2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이 선제 기습 포격으로 발생한 교전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또 한편의 영화가 있다. 해전에 참여했던 병사들 개개인에 초점을 둔 휴먼 드라마로 제작될 '연평해전'은 백운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고지전'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다. '영화는 영화다', '의형제'를 통해 평단과 관객동원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6·25 60주년 맞아 전쟁영화·드라마 제작 붐

MBC·KBS드라마 '로드 넘버원' '전우' 방송 대기
113억 투입된 블록버스터 '포화 속으로' 16일 개봉
'아름다운 우리' '흑한의 17일' 등도 속속 크랭크인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고지전'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고지쟁탈전을 모티브로 기획된 작품으로 현재 캐스팅을 진행중이다.

특히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 'D.M.Z', 드라마 '선덕여왕'을 탄생시킨 박상연 작가가 시나리오를 담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50년 12월에 있었던 '흥남철수작전'을 소재로 한 '백사'는 드라마 PD 출신 고석만이 연출한다.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육로로의 퇴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각종 선박을 이용해 군 병력 10만5000명, 차량 1만 7500대, 전투물자 35만, 그리고 한국 피난민 9만1000명을 수송한, 세계 전쟁사상 최대 규모의 해

상철수작전으로 기록돼 있다.

할리우드 자본이 만들고 있는 한국전쟁 배경의 '흑한의 17일'도 감독이 확정된 상태로 옮겨올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흑한의 17일'은 1950년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미 해병대가 10배 규모의 중공군에 포위돼 전멸 위기를 겪은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삼은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만들었던 에릭 브레빅 감독이 연출하며 '뜨거운 오후'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프랭크 피어슨이 시나리오를 쓸 예정이다.

그밖에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으로 징집돼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참가하게 된 한국인의 이야기를 그린 '마이 웨이' 역시 조만간 크랭크인 할 예정이다. 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작품으로 장동건과 손예진에 주연을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포화 속으로'

새 영화 섹스 앤 더 시티2



국내에서도 열혈팬을 양산했던 인기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영화 버전 두 번째 이야기다.

빅과와 결혼 2주년을 맞은 캐리는 더 이상 가슴 떨리지 않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살롯은 아이를 키우는 데 정신이 없다.

일관된 섹스 라이프를 고수하는 사만다는 노화 방지 알약을 수십개씩 삼키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일에 치여 사는 미란다 역시 여러 모로 힘들다.

전세계 여성들의 로망
뉴욕 4인방 이번엔 아부다비 그리고 무한대의 패션 판타지

각자의 일상에 지쳐갈 무렵 5성급 서비스를 무료 제공받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여행 기회가 생긴 사만다가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리조트에서 초호화 럭셔리 생활을 하던 일행들은 때로 일탈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패션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불려도 좋은 다양한 의상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페넬로페 크루즈 등 카메오 출연진들도 눈길을 끈다.

캐리 역의 사라 제시가 과거를 비롯해 신시아 니슨, 킴 캐트럴 등 전작의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실시요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포항점 (061) 262-9200
울릉점 (061) 227-9970
익산점 (061) 851-2422

SINCE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재물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100% 방수성!!

방수성 방수제는 거대한 물막이입니다.

고성, 지하실, 벽, 주차장, 옥상 등 방수용 요하는 곳

최신 3차 방수 방수제까지 방수용품을 합니다.

특히 방수하는 건축이나 방수용품을 방수합니다

장수바라장어

장수바라장어

061-383-1110